

# HONG KONG LINER



'행정수반의 2020년 시정 방침 연설' 기자회견에서 캐리 램 행정수반

## 홍콩 행정수반은 시정연설에서 홍콩 경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주기 위한 조치를 발표

캐리 램 행정수반은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콩 경제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폭넓은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홍콩에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지역 출신 인재를 능동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홍콩 상장 초기 생명공학기업(수익 발생 전)과 특정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본토과학기술혁신판(Mainland Sci-Tech Innovation Board) 중국 본토 상장 주식들을 상호 간 시장 접근 프로그램 주식그룹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써 홍콩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며, 광둥-홍콩-마카오 대

만구 지역 간 자산 관리 연계 제도의 시행도 촉진될 전망이다. 램 행정수반은 국제 항공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022년 홍콩국제공항 제3활주로의 시운전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SKYCITY 개발 프로젝트 등 향후 전개될 주요 개발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홍콩공항관리국이 시장 원칙에 근거해 주하이 공항 투자를 통한 항공산업 우위를 다질 예정이다. 홍콩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홍콩특별행정부가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헌법 질서 회복, 홍콩의 강점 통합 및 강화, 경제 발전 다각화, 시민들의 복지 향상 지속 추구 등을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와 장기적인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시정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

##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신임 수석대표 부임

조이스 호(Ms Joyce H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신임 수석대표가 켈리 웡 전임 수석대표 뒤를 이어 지난 11월 12일부로 정식 부임하였다. 호 수석대표는 홍콩과 한국 간의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 촉진을 계속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홍콩과 한국은 안정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으로 전 세계에 큰 도전이 닥쳤지만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및 관광 교류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995년 홍콩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호 수석대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재경사무국고부에서 증권, 선물 시장 및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현정보토사무부에서 현



조이스 호 (Ms Joyce H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신임 수석대표

정보토사무장관을 보좌하며 홍콩 헌법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도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당 부처 차관보로 임명되어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시장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본토와의 지역 내 협력을 담당하였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부임 직전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행정수반을 직속 보좌하는 정책혁신조정사무처에서 부처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정책 분야의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연구를 주도하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보조하는 고용지원계획의 고안 및 운영을 통하여 정리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썼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한국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재선정 된 홍콩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년 세계 경제 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재차 선정되었다. 홍콩은 첫 보고서 발간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다섯 가지 평가 분야 중 ‘국제 무역 자유도’와 ‘규제’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는 세계적인 지표로, 정부 규모, 법률 구조 및 재산권 보호 수준, 재정 건전성, 국제무역 자유도, 규제 다섯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세계 162개 국가 및 지역을 평가한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홍콩이 1위로 다시 한번 선정되었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 홍콩 식품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 참석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한 소피아 찬 식품보건장관

소피아 찬 홍콩 식품보건장관은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제71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전염병 방역 작업과 지역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에 관한 토론회에서 찬 장관은 “홍콩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전염병 유행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홍콩특별행정

구정부는 억제 전략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및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경계를 유지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홍콩으로의 바이러스 외부 유입 및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감염 예방 및 확대 방지 대책을 도입해왔다. 그간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 운영이 가능한 ‘뉴 노멀’에 맞춰 감염과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계속하여 억제와 완화 전략 하에서 전염병 상황의 실제 전개에 따라 정밀하면서도 섬세한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단계별 통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dex.html>

## 바이러스 검사 강화

바이러스 검사는 홍콩의 필수불가결한 방역 작업 전략이다. 홍콩 위생처와 홍콩의원관리부에서 진행되는 검사와 조사 이외에도, 홍콩 전 시민 대상 및 특정 집단 대상 코로나-19 검사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 홍콩 전 시민 검사 계획

홍콩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자발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무료 제공 계획을 시행한 결과, 핵산증폭검사를 위한 180만 명 분의 검체 채취를 통한 40명 이상의 확진자를 식별하여 격리 및 치료 조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간 감염 연결 고리를 최대한 빨리 끊고 환자 조기 식별, 조기 격리, 조기 치료 목표를 달성하였다.

### 특정 집단 검사 계획 (TGTS)

지난 7월 중순부터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특정 집단 검사 계획 (TGTS)하의 중요 인프라 및 서비스 근무자 중 바이러스 노출이 잦고 위험도가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왔다. 검사 대상자는 호텔의 고객 응대 직원, 노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 대면 서비스 제공 공무원 등이다. 이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 식별, 조기 격리,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 상황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 지역 검사소 운영

지난 11월부터 정부는 홍콩의 여러 지역에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여행이나 업무용 인증과 같은 시민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염 상황이 불안정해질 경우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검사 추가 수요를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예약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첫 진료소 4곳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1월 말부터는 5 곳이 더 추가되었다. 진료소는 3개월간 운영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3개월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특정 집단 검사 계획(TGTS)에 따라 홍콩식품환경위생처는 검체 채취 용기를 술집 밀집지역에 배포하고 이들 유흥가 주변에 이동식 수거 차량을 배치하여 술집 종업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권고하였다.



홍콩 전 시민 검사 계획(UCTP)하에 천완(Tsuen Wan)에 마련된 진료소

## 웹 세미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시장에서 홍콩의 역할’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중화총상회는 지난 9월 11일 한국의 비즈니스 및 무역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시장에서 홍콩의 역할’ 주제의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토미 유엔 홍콩특별행정구정부 정제급내지사무부(정치제도 및 본토사무부) 디렉터는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의 중요성과 홍콩의 역할

및 경쟁력, 대만구 시장에서 2020년도 이후 홍콩의 우선 추진 과제 등에 대하여 소개했다.

기타 연사로는 홍콩무역발전국의 지원 업무에 대해 발표한 벤자민 야우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장과 홍콩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전화성 CNT TECH 대표 등이 참석하여 성장 잠재력을 지닌 대만구 시장에서 홍콩을 활용한 진출 방안을 공유하였다.



토미 유엔 홍콩특별행정구정부 정제급내지사무부(정치제도 및 본토사무부) 디렉터가 대만구 시장 경쟁력과 홍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웹 세미나: ‘홍콩 스타트업 생태계’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디캠프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 FRONT1)은 지난 9월 18일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중심지로서 홍콩의 장점과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 웹 세미나를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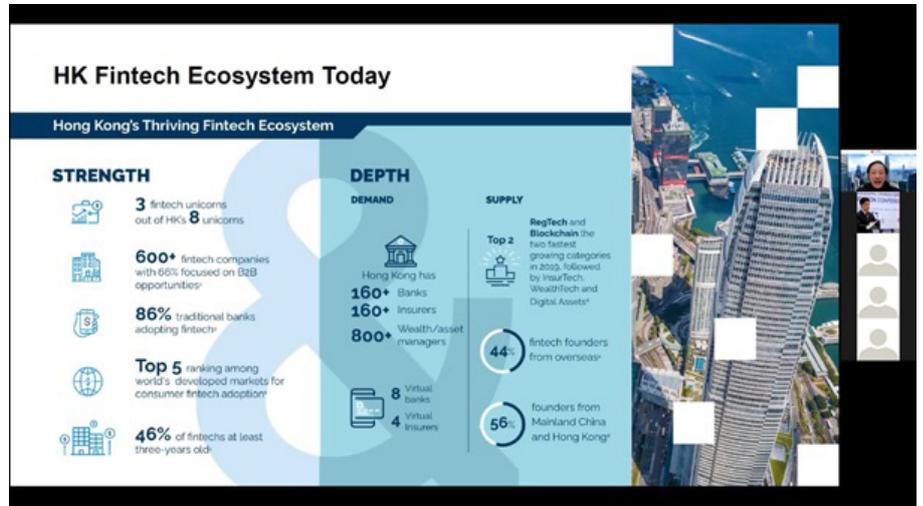
개최하였다. 홍콩투자청과 홍콩사이버포트의 연사들이 홍콩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해외 스타트업 업체가 누릴 수 있는 홍콩의 제도적 강점과 특별한 혜택에 대해 소개하였다.



토마스 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사진 오른쪽)는 스타트업 관련 홍콩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웹 세미나: ‘홍콩 금융 시장 및 홍콩의 핀테크 생태계’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홍콩투자청은 지난 11월 18일 한국 금융기관을 위한 웹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홍콩금융관리국, 홍콩투자청, 홍콩에 기반을 둔 핀테크 기업에서 주요 연사로 참석하여 홍콩 금융 시장의 탄력성과 홍콩의 핀테크 생태계, 핀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 홍콩투자청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2020)에서 ‘홍콩 - 글로벌 시장 진출의 관문’을 주제로 발표

스티븐 필립스 (Mr Stephen Phillips) 홍콩투자청장이 지난 11월 11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홍콩 - 글로벌 시장 진출의 관문’ 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필립스 청장은 홍콩이 해외 여행에 편리한 점, 풍부한 인재풀, 중국 본토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이점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국제 금융

의 중심지로 남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홍콩 주식 시장이 계속하여 확장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현지 핀테크 산업은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바, 향후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홍콩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IAN LEADERSHIP CONFERENCE**

ChosunMedia THE CHOSUNILBO

**Stephen Phillips**

**Korean operations in Hong Kong**

- SAMSUNG ELECTRONICS
- AMOREPACIFIC CORPORATION
- CLO CLO VIRTUAL FASHION
- PayGate
- YOUK SHIM WON
- KEB Hana Bank
- 한국문화원 Centre Cultural Korea
- THE SHILLA duty free
- EUN Sung O&C Onshore/Offshore Marine & Construction
- t'way
- TmaxSoft

## 행정수반 2020년 시정연설 (새로운 인내로 앞으로 나아가자) 하이라이트

## 결실을 맺고 있는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조성

### 장기주택전략에 따른 10개년 공공주택 공급목표 달성

- 10개년 장기주택전략(2021-2022년부터 2030-2031년)에 따라 공공주택 수요 약 301,000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316,000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30헥타르를 확보. 토지는 주로 통충 뉴타운 확장, 카이탁, 앤더슨 로드 채석장, 헝수이키우/하추엔, 쿠우통 북부/판링 북부, 판링 골프장 일부 개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브라운필드 단지, 재구획 부지 및 주택처(HD)에서 공공주택개발을 위해 확보해둔 부지 등을 통해 공급

### 중장기 토지공급 증대

- 향후 10~15년에 걸쳐 공공 및 민간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주로 북부 노선을 따라 위치한 주택부지 약 90 헥타르, 시우호완 지하철 차량기지 상부 개발과 도시 빈민가 지역 3곳 및 타이항사이 지구 재개발을 통하여 공급



### 지속 가능한 토지공급을 위한 장기계획

- 장기주택공급계획은 주로 카우이차우 인공섬 매립, 룽쿠탄 근해 매립 및 툰먼 서구 재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며, 총 약 1,440헥타르 면적의 토지 이용

###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촉진

- 대규모 민간주거지역개발 승인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 촉진사무소를 설치
- 개발부 산하에 있지 않는 부서까지 관장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효율화 운영위원회의 권한 확대
- 행정수반은 모든 부처와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조를 맞추도록 주택 및 토지 공급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 기울일 예정

### 임시주택 및 기타 지원 정책



- 2020-2021년부터 2022-2023년까지 3년 동안 비정부기구(NGOs)에서 주관하는 15,000호의 임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83억 홍콩달러의 전용 기금을 활용. 13,200호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부지는 이미 파악됨
- 임시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임차하는 비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제도를 도입
-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3년 이상 대기해온 적격 신청 가구에 현금수당을 제공하는 시범제도를 2021년 중반부터 도입하며, 이를 통해 약 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
- 2021년 1분기까지 '재분할된 주거유닛의 임대차 관리에 대한 연구' 완료 예정
- 홍콩주택위원회(HA)와 홍콩주택협회(HKHS)로 하여금 향후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택지율을 증대시키도록 하여 연면적의 5%는 사회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 교통 및 운송 인프라

- 도시개발계획 및 주택공급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자 종합적인 교통 및 운송 전략 연구와 '2030년 이후 철도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수행
- 홍콩철도유한공사(MTRCL)는 통충선 연장 및 툰먼 남부선 연장에 대한 세부 계획과 설계에 착수 하였으며, 북부노선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사우스 아일랜드 노선(서단)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
- 동구룡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쿤통 지하철역 연결을 위한 무빙워크 네트워크 및 고가조경데크 개발 등을 포함한 멀티모달 친환경 연결 시스템을 대중에게 제안 및 협의



### 환경 보호 청사진

-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중반 홍콩 기후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
- 폐지 재활용 처리 역량을 확보하고자 2021년 상반기에 툰먼 에코파크의 현대식 펄프화 시설 개발을 위한 입찰자 모집

### 산업용 건물 활성화

- 산업용 건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표준 요율'에 따라 토지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시범 제도를 2021년 초 도입

## 교육 및 재능개발

### 양질의 교육

- 도덕, 시민, 국가관 교육을 제고하고, 헌법, 기본법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
-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일반 교양과목을 개편
-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임용 시, 재직 중, 승진 전 교사 교육 강화
- 전자학습(e-learning)을 지원하고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년 프로그램을 도입 목적으로 양질의 교육 기금(Quality Education Fund)에 20억 홍콩달러 배정
- 홍콩공연예술학원(HKAPA)을 위한 신규 교육 시설 및 학생 호텔 제공 지원

### 청년 개발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에 청년기업가정신 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약 200개의 청년 스타트업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청년개발기금에 1억 홍콩

달러를 배정

- 대만구 지역 청년 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홍콩과 중국 본토의 대만구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중국 본토의 대만구 도시에서 근무할 홍콩 현지 대학졸업생을 고용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2천명 한도로 보조금 지급

##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

### 고용창출

-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의 2차 방역기금하에 약 1만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약 3만개의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하였고(그 중 11,000개 이상이 대학 졸업생에 적합한 일자리), 최근 몇 년 동안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 환경보호, 건설 및 엔지니어링, 혁신 및 기술, 자산관리, 법률 및 창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분야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임
-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직원재교육위원회 신규 프로그램인 특별애호증가계획에 따라 2만개의 취업훈련자리와 취업훈련보조금을 제공

### 사회 보장 안전망 강화

- 기본 종합사회보장지원보조금 제도하의 실업자지원 특별 제도(비장애인 신청자에 대한 자산 한도가 100% 완화됨)를 6개월간 연장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운영
- 기본 종합사회보장지원보조금에서 비장애인 신청자가 보유한 보험상품의 현금가액을 1년간 자산 테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신규 방침을 시행
- 단기 식품지원서비스 프로젝트를 2021년 8월부터 상설 서비스로 운영

### 교통비 부담 완화

- 월간 대중교통비용 한도를 400 홍콩달러에서 200 홍콩달

리로 완화하는 대중교통운임 보조금 제도에 따른 특별 임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운영

- 홍콩철도유한공사는 당초 올해 말에 중단할 계획이었던 20% 운임 할인을 3개월간 연장하여 2021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

## 의료 및 보건

-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악물퇴치기금에 추가로 3억 홍콩달러를 배정
- 민간 장애인 거주보호시설을 위한 시설 매수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거주지 임시 간호 장소를 제공, 공실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특수학교에서 거주지 임시 간호 서비스 제공, 주간활동센터 서비스 배정이 필요한 심각한 정신장애인에게 본인의 호스텔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 간병인 정책 및 관련 시범 제도에 대한 연구 시행
- 커뮤니티 케어 기금의 고령자 치과보조 프로그램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여 브릿지 또는 크라운 제거 및 치수치료 제공까지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킴. 프로그램에 최소 5년 이상 가입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료 가철성 의치 및 관련 치과 서비스(2회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기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자산조사 방식을 추가 개선, 사마리아인 기금 및 커뮤니티 케어 기금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약품 유형 확대, 특수 장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플랫폼 마련



## 시립 서비스

-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개선하고 설치류 퇴치 작업 강화를 위한 기술 적용
- 틴수이와이 임시 시장을 개장하고, 6개 신규 공공 시장 프로젝트 계획 추진

## 경제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

### 국제 금융 센터

- 홍콩에 상장된 초기 생명공학기업들과 특정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본토 과학기술혁신판 상장주식들을 상호 시장 접근 프로그램 주식 그룹에 포함시킴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간 자산 관리 연계 제도의 시행 촉진
- 적절한 부동산투자신탁(REIT) 투자 제한 완화 고려, 투자자 기반 확대 및 사모펀드가 배분한 성과보수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 홍콩 부동산투자신탁 홍보
- 핀테크 개념증명(POC, 기술 검증)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 업체와 제휴하여 개념증명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장려
-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감독을 위한 허가제도 수립에 대한 공공 상담 시행

### 국제 항공 허브

- 홍콩공항관리국은 항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장 원칙에 근거해 주하이 공항에 투자 예정
- 공항 도시 개발의 통합 및 강화를 위하여 홍콩공항관리국은 강주아오 대교(HZMB)의 홍콩출입경심사구역(인공섬, Hong Kong Boundary Crossing Facilities Island)에 자동 주차 시설, 복합 환승 터미널 및 자율운송시스템을 통해 공항과 스카이스티, 홍콩출입경심사구역을 연결하고 향후 통풍 타운 센터까지 연장될 공항 시티 노선 등 혁신적인 시설을 개발할 예정
- 홍콩과 주변 대만구 도시를 연결하는 상업 헬리콥터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 국제 혁신 및 기술 허브

- 선전-홍콩 혁신 및 기술 협력 구역을 선전시와 공동개발하고 록마차우 루프의 홍콩-선전 혁신 및 기술 연구단지(Hong Kong-Shenzhen Innovation and Technology Park)에 1차 연구개발(R&D) 건물들이 완공되기 전까지 선전 푸텐에 위치한 혁신 및 기술 구역의 특정 부지를 홍콩사이언스파크에서 임차 및 관리하는 방안을 선전시 정부와 협의
- 해외에서 뛰어난 R&D 인재를 유치하여 홍콩 R&D 산업에 종사하도록 20억 홍콩달러의 비용을 들여 5개년 글로벌 STEM 교수직 제도를 도입
- 13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포함하는 '홍콩 2.0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올해 12월 공개
- 다양한 정부 및 공공사업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AM



SMART'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올해 12월 도입

### 비즈니스 및 상업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채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금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
- 대만구 지역과 해외에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전문서비스 발전지원제도에 5천만 홍콩달러 배정
- 홍콩무역발전국은 정책자문과 교육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콩 기업들이 본토 내수 시장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고 본토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동성 및 관련 상공회의소들과 협력하여 원스톱 'GoGBA' 플랫폼을 도입 예정

### 창의 산업

- 'CreateSmart 사업'에 10억 홍콩달러 추가 투입
- 아트테크(Art Tech)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1억 홍콩달러를 배정하고 실험목적에 위한 최첨단 장소 및 지원시설 제공

### 건설 산업

- 향후 몇 년간 1천억 홍콩달러 이상의 연간 공공사업 지출을 유지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를 고려하면 30만개 이상의 건설업 고용 기회 창출 기대
-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 투표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각 소규모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한도를 현재 3천만 홍콩달러에서 5천만 홍콩달러로 상향조정 하도록 입법회에 건의

### 컨벤션 및 전시 산업

- 완차이 북부에 위치한 3개의 정부 타워와 공원 소방서를 컨



- 벤션 및 전시 시설과 호텔 및 사무실로 재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아시아월드 엑스포 2단계 건설사업도 추진
- 10억 홍콩달러 규모의 컨벤션 및 전시산업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홍콩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전시회 참가업체 및 주요 컨벤션 참가자에게 보조금 지원

### 관광산업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6억 홍콩달러의 자금을 활용하여 추가 구제책 시행
- 전염병이 완화되면 더 많은 지역 문화 및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본토 및 해외 관광객 시장을 확대하고 풍부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여가 및 여행 경험 제공



행정수반 2020년 시정연설 (각 지구별 장소개발) 하이라이트

툰먼 서부

- 툰먼-첵람콕 터널이 올해 말 개통되면 툰먼과 란타우 북부 간 통근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터널 및 란타우 노선 통행료를 면제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홍콩철도유한공사(MTRCL)는 툰먼 서부 지역 개발의 추진 동력이 되어줄 툰먼 남부선 연장을 위한 세부 계획 및 설계 착수 예정



- 주거지역개발 및/또는 기타 용도를 목적으로 툰먼 서부 지역의 토지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룡구탄매립지와 툰먼 서부의 해안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계획과 공학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홍콩내하부두(RTT) 필요성 검토

수변 산책로

- 전용 기금 65억 홍콩달러를 기반으로 한 13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재 23 킬로미터 길이의 수변 산책로는 2028년 34킬로미터로 연장될 예정이며 빅토리아하버의 양측을 따라 추가적으로 35헥타르 면적의 지구 특성을 담은 양질의 공공 옥외 공간 제공 예정
- 내년부턴 코즈웨이 베이와 퀴리 베이를 연결하는 아일랜드 동부간선도로하부에 친수(water-friendly) 문화와 접근성을 강조한 설계를 기반으로 길이 2킬로미터, 폭 10미터



- 의 수변 산책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사이잉푼의 이스턴 스트리트 북쪽에 위치한 수변 공원에 창의적인 요소들을 추가할 예정. 두 프로젝트 모두 2024년에 단계적으로 완료 예정
- 운영업체는 '수상 택시'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 예정

서구룡문화지구(WKCD)

- 시취 센터(Xiqu Centre)와 프리스페이스(Freespace)의 개관과 M+ 뮤지엄과 홍콩고궁문화박물관이 향후 2년 안에 완공을 앞두고 서구룡문화지구는 지역의 전통적 특색과 국제적인 요소들을 한데 아우르며 홍콩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음
- 면적이 40헥타르에 달하는 서구룡문화지구는 그 중 23헥타르가 공공 옥외 공간. 서구룡문화지구의 빼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수변 산책로와 예술공원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음

센트럴 지구 보존



- 센트럴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옛 중앙경찰청사 복합단지를 타이쿰 문화예술센터(Tai Kwun-Centre for Heritage and Arts)로 재활성화
  - 할리우드 로드의 옛 경찰기혼자숙소를 PMQ로 전환
  - 옛 중앙정부청사의 이스트윙과 메인윙을 저스티스 플레이스(Justice Place)로 개조

- 머레이 건물을 호텔로 전환
- 옛 중앙정부청사 웨스트윙과 프랑스 선교회 건물을 개조하여 국제 및 현지 법률관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저스티스 플레이스와 함께 홍콩의 법률 허브를 구성
- 센트럴 마켓재활성화 프로젝트는 2021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료 예정
- 올해 말 제3부지(Site 3)에 대한 입찰자를 모집하는 등 뉴센트럴 하버프런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신계 북부 개발

- 신 개발지역에 7만2천호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통 북부/판링 북부에 위치한 68헥타르 면적의 사유지 개발을 재개하였으며, 2026년에 1차 공공주택 완공 예정
- 쿠통 북부 신개발지역 공공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을 수용하고 산틴, 느어탐메이 및 아우 타우 지역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북부 노선 철로 프로젝트 시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7만호 이상의 주택 제공이 가능한 산틴/록마차우 개발 노드를 포함하여 북부 노선을 따라 주택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약 90헥타르 면적의 토지 제공
- 홍콩의 록마차우 검문소 부지 20헥타르 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 황강항을 대상으로 공동 부지 사용 협약 채택 가능 여부를 선전시 정부와 협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로우 검문소 강화를 선전시와 협의
- 록마차우 루프에 홍콩-선전 혁신 및 기술 연구단지를 추진하고 '하나의 구역, 두 개의 단지(one zone, two parks)' 모델에 따라 선전-홍콩 혁신 및 기술 협력 구역(Shenzhen-Hong Kong I&T Co-operation Zone) 개발을 위해 선전시와 협력



### 란타우 북부

- 약 2만호의 주택을 제공(이 중 약 절반은 보조금에 의한 분양주택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홍콩철도유한공사의 시우호완 차량기지 상부 개발 추진



- 약 62,100호의 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충 뉴타운 확장추진
- 홍콩철도유한공사는 통충선 연장을 위한 세부 계획 및 설계 착수 예정
- 홍콩공항관리국은 2022년 세 번째 활주로를 개통하며 2023년에는 프리미엄 물류 센터를 완공할 것이고, 스카이스티 개발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예정



- 홍콩공항관리국은 강주아오 대교의 홍콩출입경심사구역(Hong Kong Boundary Crossing Facilities Island)에 자동주차 시설 및 자율운송시스템을 통해 공항과 스카이스티, 홍콩출입경심사구역을 연결하고 향후 통충 타운 센터까지 연장될 공항 시티 노선 등 새로운 시설을 개발할 예정
- 홍콩시민들이 업무, 가족 방문,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강주아오 대교를 통해 광둥성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강주아오 대교를 통해 광둥까지 운행하는 홍콩 자가용 대상 무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본 제도 시행 후 홍콩/선전 육상 검문소까지 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북서 신계지역을 홍콩섬, 란타우 북부 및 툰먼 해안지역의 도로와 철로를 연결하여 홍콩의 전체적인 운송 네트워크를 최적화 및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란타우 미래 비전'에 따라 주택개발 용지 확보를 위한 카우이차우 인공섬 연구 조기 착수 추진, 활발한 탄소중립 커뮤니티 개발, 란타우 북부의 상업 개발 가능성 확대

### 아일랜드 사우스 활성화

- 교육 및 보존, 자연경관, 전략적 해변 위치, 내년 여름에 개장하는 워터월드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여가 및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션파크의 재탄생을 위한 제안서 마련

- 남부 지구의 독특한 문화유산 및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오션파크에 기증된 점보 플로팅 레스토랑을 재활성화
- 애버딘 태풍 대피소 및 압레이차우 메인 스트리트 등 애버딘과 왕척항 인근의 문화 및 여가 시설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어촌의 분위기, 역사 및 문화를 느끼고 이 지역의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오션파크를 중심으로 타 지구 및 섬들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 루트를 모색, 애버딘 태풍 대피소 지역 확대, 해안지역을 따라 더 많은 시설 제공
- 운동선수과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위한 고급 훈련시설을 제공하고자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복원된 섹오 채석장 부지에 수상스포츠 센터 건립을 모색
- 산업용 건물 재활성화 정책을 통해 왕척항에 위치한 오래된 산업용 건물의 재개발 혹은 전환을 촉진하여 신산업과 예술 및 문화 부문에 더 많은 운영 공간 제공
- ‘단일 부지, 다양한 용도’ 모델에 따라 본 지구의 기존 ‘정부 기관 혹은 커뮤니티’ 부지 재개발 또는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애버딘 마켓 정비 작업 착수
- 왕척항 비즈니스 지구와 인근 수변지역의 보행자 연결성을 강화하고 ‘장소개발’을 통해 섬내 로드와 포총완을 따라 보행자를 위한 환경 개선
- 홍콩철도유한공사는 올해 말 사우스 아일랜드노선(서단)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

### 동구룡 활성화

- 동구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쿤통, 구룡 베이 및 카이

탁 인근지역을 부도심 업무지구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구의 상업 연면적이 2012년에는 약 170만 평방미터 수준이었으나 현재 290만 평방미터로 70% 증대되었고, 향후 2년 내에 약 350만 평방미터로 더욱 증대되어 센트럴의 중심 업무지구와 그 규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될 예정

- 교통 및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16 헥타르 면적의 옥외 공간 및 공공 장소 제공/강화 하였음
- 본 지구의 무빙워크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멀티모달 친환경 연결 시스템,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그린웨이 네트워크 및 플랫폼 체증 완화 목적으로 쿤통 MTR역 연결을 위한 고가조경데크 시행 지원
- 홍콩토지발전국(URA)의 쿤통 타운 센터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쿤통 타운 센터는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
- 홍콩 최대의 스포츠 시설인 카이탁 스포츠 공원이 2023년 완공되면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주경기장, 1만명 수용이 가능한 실내 스포츠 센터, 공공 운동장과 약 8헥타르 면적의 시민을 위한 공간이 제공될 예정
- 최첨단 무대장치와 음향영상설비를 갖춘 동구룡 문화센터가 2023년 개관 예정
- 카이탁 개발구역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길이 13킬로미터의 그린웨이 네트워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예정



SPOTLIGHT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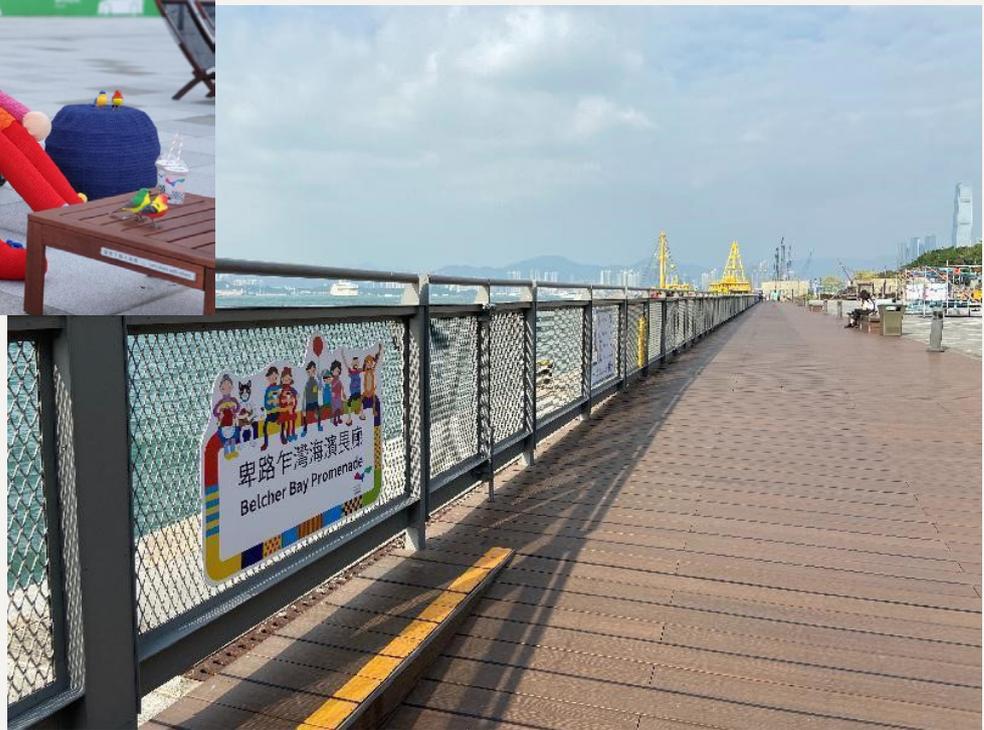
**멋진 등불을 밝힌 중추절**

홍콩에서는 지난 10월 1일 중추절을 맞이하여 각종 모양과 크기의 등불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불을 밝혔다. 문 페스티벌(Moon Festival)로도 알려진 이 축제 기간에는 가족, 친구들 및 연인들이 함께 모여 월병을 맛보며 등불을 밝히고 달빛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수변공원 산책로

수변공원 산책로를 따라 지역 사회의 디자인 단체에서 제작한 미술품이 설치되었다.



**벨처 베이(Belcher Bay) 수변공원**

지난 10월 19일 케네디 타운(Kennedy Town)의 싱 사이 로드(Shing Sai Road)에 위치한 벨처 베이 수변공원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 하버 서쪽 바다의 전경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레저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